윤영철 4이닝 7탈삼진 무실점 호투

KIA, 시범경기 키움에 2-3 역전패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마운드 '신인 특급' 계보를 잇는다.

KIA가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 4차전에서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고졸 루키' 윤영철이 선발로 나서 KBO리그 첫 무대를 경험했다. 결과는 4이닝 2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첫 피칭에서부터 탈삼진쇼를 펼치며 눈길을 끌었다.

1회 윤영철이 '국가대표' 김혜성을 첫 상대로 만났다.

2구 승부 끝에 빠른 타구가 2루로 향했고 김선빈이 좋은 수비로 아웃카운트를 올려줬다. 이형종은 7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 2022시즌 KBO MVP 이정후를 만났다. 2구 승부 끝에 우전안타를 맞았고 러셀에게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 연달아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2사 1·2루에 몰렸지만, 박주홍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끝냈다.

2회에는 8개 공만 던졌다. 임지열은 4구째 헛스윙 삼진, 임병욱은 3개 공으로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김재현은 초구에 좌익수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순식간에 두 번째 이닝이 끝났다.

김휘집과 김혜성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한 3회 말. 이형종에게 좌전안타는 내줬지만 이정후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도 깔끔했다. 러셀을 포수땅볼로 잡았고, 박주홍의 타구는 1루수가 직접 잡아 베이스를 찍었다. 임지열과의 승부에서는 3개의 공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시범경기 첫 등판을 끝냈다.

이후 KIA는 김기훈-이준영-김대유를 연달아 마운드에 올리면서 좌완들로만 경기를 풀어갔다.

김기훈이 2-0으로 앞선 5회 등판해 6회까지 2이닝을 소화했다. 김기훈은 5회 첫타자 임병욱에게 우전안타는 내줬지만 김시앙, 송성문, 이승원의 방망이를 모두 헛돌게 하며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하지만 6회 2사에서 김태진과 박주홍에게 연달아 2루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했다.

2-1로 앞선 7회에는 이준영이 등판했다. 이준영은 8개의 공으로 7회말을 정리했다. 이병규는 3구째 헛스윙 삼진, 이지영은 4구째 헛스윙 삼진 그리고 송성문은 공 하나로 1루 땅볼로 돌아섰다.

8회 말에는 김대유가 등판했다. 김대유는 이승원을 중견수 플라이, 장재영을 3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빠르게 투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찬혁, 김태진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고 이용규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에 몰렸다. 이어 김대유가 김건희와의 승부에서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2-3 역전을 허용했다.

KIA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2-3 역전패로 끝났다.

패배에도 김도영의 뜨거운 타격은 계속됐다. 첫 타석에서 매서운 타구가 3루수 김휘집에 막혔지만 이어진 타석에서는 키움의 외국인 선발 후라도와 두 번째 투수 이승호를 상대로 좌전안타를 만들면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연습경기에서 달라진 타격을 보여줬던 김규성은 4회 2사에서 이승호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투수 윤영철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WBC 성적부진, 국민과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

한국야구위원회·10개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 대표팀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부진한 성적에 공개 사과했다.

KBO는 1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야구대표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경기력을 보인 점에 관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야구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KBO와 10개 구단은 WBC 결과에 큰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리그 경쟁력과 국가대표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BO와 10개 구단 단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야구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종 제도 신설과 발전 방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야구 대표팀은 일본 도쿄에서 끝난 WBC 본선 1라운드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했던 호주에 7-8로 패한 데 이어 일본에 4-13으로 대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한국, U-20 아시안컵 축구 결승 진출 실패

승부차기 우즈벡에 1-3 패배

한국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4강에서 홈팀 우즈베키스탄에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했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U-20 아시안컵 대회 13일째 홈팀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에서 전·후반과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으로 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우승 이후 11년 만에 AFC U-20 아시안컵 패권 탈환에 실패했다.

41회째인 이 대회에서 통산 12회 우승,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8년에는 결승에 올라 사우디아라비아에 1-2로 져 준우승했다.

이번 대회 결승은 18일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의 경기로 밀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이라크는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일본을 역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 4강에 오른 한국과 이라크,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은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19년에 한국 남자 축구 사상 FIFA 주관 대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U-20 아시안컵 4강에서 패한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3-4위전 없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민재가 16일 이탈리아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2-2023 UCL 16강 홈 2차전에서 마리오 괴체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김민재, 나폴리 역사를 쓰다

철벽수비 프랑크푸르트 3-0 제압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이끌어

이번 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유럽 '빅 리그'에 입성한 수비수 김민재가 첫 해부터 팀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김민재는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홈 경기에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21분 주앙 제주스로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나폴리가 이 경기에서 3-0으로 완승, 원정 1차전(2-0)과 합계 5-0으로 앞서 8강 진출을 확정하며 구단 역사와 김민재 개인 커리어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작성됐다.

1926년 창단한 나폴리가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인 UCL에서 8강에 진입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와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김민재는 UCL에는 이번 시즌 처음 출전했는데, 첫 시즌에 8강전까지 나서게 됐다.

나폴리는 세리에A에선 22승 2무 2패로 승점 68을 쌓아 2위 인터 밀란(승점 50·16승 2무 8패)에 승점 18 차로 앞서며 이미 우승이 임박한 상황이다.

나폴리가 세리에A 챔피언에 오른 건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하던 1986-1987시즌과 1989-1990시즌 등 두 차례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우승이 없었는데, 김민재가 합류한 첫 시즌에 정상 탈환을 눈앞에 뒀다.

세리에A 득점 선두를 달리는 빅터 오시멘(19골)을 필두로 한 공격진부터 김민재가 중심을 잡는 수비진까지 탄탄한 전력을 갖춘 나폴리가 리그는 물론 UCL에서도 기세를 이어가며 8강을 뛰어넘는 성적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나폴리는 이번 UCL 조별리그에서 20골을 퍼붓고 6골만 실점하며 리버풀(잉글랜드) 등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고, 프랑크푸르트와의 16강전에선 완승으로 8강행을 결정지었다.

이제 한층 더 강한 상대들과 대결이 기다리는 가운데 대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수비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김민재의 활약은 더 중요해졌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 때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돼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이날 어김 없이 선발로 출격한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을 4차례 이겨내는 등 무실점 수비를 이끌고, 공격에서도 번뜩이는 장면을 남겼다.

팀이 합계 3-0으로 앞선 후반전 초반 중원에서 볼을 끊어낸 뒤 동료에게 내준 공을 다시 받아 '폭풍 드리블'을 시작, 순식간에 페널티 지역 왼쪽까지 들어가 슈팅을 시도했다. 골대에 미치지 못해 UCL 데뷔골은 불발됐지만, '공격 본능'을 뽐내본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K리그 명예의 전당' 올라

프로축구 출범 40주년 기념 지도자 김정남·공헌자 박태준

'저격수' 최순호,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그라운드의 여우' 신태용, '라이언킹' 이동국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6일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올해 신설한 'K리그 명예의 전당' 초대 헌액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당은 선수, 지도자,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2023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헌액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당이 신설된 올해 선수 부문 헌액자는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10년의 세대별로 역대 최고의 선수 1명씩 총 4명이 선정됐다. 지도자와 공헌자는 각 1명씩 포함됐다.

선수 부문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세대별 15인씩 후보를 대상으로 자체 투표(25%), 구단 대표 및 감독 투표(25%), 미디어 투표(25%), 온라인 팬 투표(25%)를 거쳐 최종 4인이 선정됐다. 지도자·공헌자 부문은 선정위원회 내부 합의로 헌액자가 선정됐다.

1세대 헌액자는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됐다. 1980년 포항제철축구단에 입단한 그는 프로축구가 출범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포항제철과 럭키금성에서 활약하며 K리그의 역사를 열었다. K리그 통산 100경기 23골 19도움을 기록했으며, 1986년 리그 우승과 1984년 K리그 베스트일레븐을 경험했다.

최순호는 합산 득표점수 30.472점을 받아 선정위, 구단, 미디어, 팬 투표 모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2위는 15.165점의 최강희였다.

2세대에서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이 선정됐다.

그는 1992년 포항에서 데뷔해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 베스트일레븐, MVP를 경험했다. K리그 통산 156경기에 나와 14골 8도움을 기록했고, 리그(1992)·리그컵(1993) 우승을 한 차례씩 경험했다. 또 베스트일레븐에 5차례 이름을 올렸고, 리그 MVP도 수상했다. 합산 투표점수는 31.091점, 2위는 23.339점을 받은 김주성이었다.

3세대 헌액자의 영예는 '그라운드의 여우'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에게 돌아갔다.

1992년 일화천마에서 K리그에 데뷔한 그는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리그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일화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1995년 리그 MVP도 차지했다. 2001~2003년 또 한 번의 팀의 리그 3연패를 경험한 신태용은 401경기 99골 68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 베스트일레븐 최다 수상(9회) 대기록을 보유한 신태용의 합산 투표점수는 21.881점. 유상철(16.404점)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4세대 주인공은 '라이언킹'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다.

1998년 포항에서 데뷔한 이동국은 안정환, 고종수와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며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유럽 무대 도전 후 K리그에 복귀한 이동국은 2008년 일화를 거쳐 2009년 전북현대에 입단, 2020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8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산 548경기 228골 77도움으로 K리그 역대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포인트,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국은 합산 투표점수 40.957점을 받아 2위 이천수(11.414점)를 크게 앞섰다.

지도자 부문의 초대 헌액자로는 K리그 통산 210승 168무 159패를 기록한 '그라운드 신사' 김정남 감독이, 공헌자 부문에는 한국 축구의 선각자 역할을 했던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